# 인니, 보로부두르 사원 입장료 인상 추진

**내국인 15배…최대 100달러 인상**
**"부자 위한 문화유산" 항의 쇄도**
**2019년, 국립공원 회원권 추진 등**
**'관광지 보존' 명목에 비판 목소리**

박정현 객원기자


세계 최대 사원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사원 전경. 사진출처=CNN

인도네시아 정부가 세계 최대 불교사원이자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보로부두르(Borobudur) 사원의 입장료를 최대 100달러(한화 약 12만5000원)까지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조치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지만 현실성을 고려하지 못한 조치라는 불교계 안팎의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6월 7일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루훗 판자이탄 해양투자조정부 장관은 지난 주말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보로부두르 사원 입장료를 외국인 100달러, 내국인 75만 루피아(6만5천원)로 각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하루 방문객도 1200명으로 제한한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엔 항상 현지 가이드를 동행해야 한다.

현재 보로부두르 사원 입장료는 10세 이상 외국인의 경우 25달러(3만1000원) 또는 35만 루피아(3만원), 내국인의 경우 5만 루피아(4300원)이다. 여기서 외국인 입장료는 4배, 내국인 입장료는 무려 15배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루훗 장관은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역사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사찰 인근 지역 여행을 위해 전기 셔틀버스를 도입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루훗 장관은 인근 지역민 중에서 외국인 관광객들과 동행할 관광 가이드를 고용해 일자리도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루훗 장관은 "지역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키우는 한편, 미래 젊은 세대들에게 유적지 보존에 대한 책임감을 심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지인들과 불교계 안팎에선 당국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보로부두르 사원 방문객 비율을 살펴보면, 내국인들이 훨씬 높은데 내국인들의 입장료를 15배나 인상했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네티즌들은 "부자만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냐"며 볼멘소리를 터트렸다.

동남아시아 여행 웹사이트 트래블피쉬(Travelfish)의 공동설립자인 스튜트 맥도날드는 "보로부두르 방문객 중 외국인 여행자는 소수에 불과하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방침"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당국은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보로부두르 사원 입장료 인상안을 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인도네시아 국회와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격화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인도네시아 정부가 관광지 보존을 명목으로 문화유산 입장료를 인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어서 비판이 가중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019년 코모도왕도마뱀 멸종을 막겠다며 코모도 국립공원에 1천 달러(113만원)짜리 연간 회원권을 도입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며 관광객들이 급감, 백지화된 바 있다.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 족자카르타 인근 보로부두르 사원은 8세기 전반 중부 자바에서 번영한 샤일렌드라 불교왕조 시대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6만㎥의 석조물이 가로 · 세로 각각 123m 부지에 34.5m 높이로 솟아있다. 특히 보로부두르 사원은 미얀마 바간, 캄보디아 앙코르 와트와 함께 세계 3대 불교 성지로 꼽힌다. 199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후 2012년 기네스북에 '세계 최대 불교사원'으로 등재됐다.

# 日 정토종, 사찰 방문하고 포인트 받고

**개창 850년 맞아 포인트 앱 출시**
**포인트로 다양한 상품 교환 가능**


일본 정토종 사찰. 사진출처=소라뉴스24

2024년 개창 850년을 맞는 정토종이 사찰을 방문하면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앱을 출시했다.

일본과 아시아 소식을 전하는 소라뉴스24는 6월 8일 정토종이 최신 개발한 포인트 앱을 소개했다.

이번 앱은 개창 850주년을 축하하는 동시에 가파르게 줄고 있는 사찰 방문객을 확보하기 위해 제작됐다. 정토종에 따르면 2022년 현재 사찰 방문객이 코로나19 이전보다 50% 감소했다.

앱에 등록된 사찰을 방문하면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적립된다. 정문을 통과하면 GPS 감지를 통해 포인트가 적립되며 본당 근처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기 위해 사원 경내에 입장하면 더 많은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특히 외딴곳에 있는 사찰을 방문하거나 특정 지역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에 참석하면 이보다 더 많은 포인트가 쌓인다. 포인트는 '마이리'로 지칭된다. 10마이리에 센베이 쌀과자를, 50마이리에는 수제 생강차로 교환 가능하다.

정토종에 따르면 현재 일본 전역에서 7000개 이상의 사찰들이 앱 사용에 참여할 뜻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성지순례를 게임처럼 만드는 것에 대해 우려를 보이는 가운데, 정토종은 "일상생활의 일부로 사찰을 방문하는 습관을 만들어주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네티즌들도 지지를 보내고 있다. "스님들도 유튜브 채널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시대에 걸맞는 앱이다" "일본 정부보다 사찰이 기술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있다" 등 다양한 긍정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임은호 기자

# 당나라 불상서 유리…당대 기술 유추 기대

**롱먼 석굴서 발견 비로자나불**
**금 · 은 등 발견…"보기 드문 일"**

중국 허난성에 위치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룽먼 석굴에서 금과 은, 색유리 등이 사용된 불상이 발견됐다. 불상은 당나라(618~907) 때 조성된 것으로 당시 금도금 기술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모은다.

신화통신은 6월 8일 "고고학자들이 당나라 시기 만들어진 거대한 허난성 비로자나불 두상에서 금과 은, 유리 요소를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발견은 2021년 12월부터 시작된 문화재 보강 및 보호를 위한 프로젝트 도중 발견된 것이다.

고고학자들은 거대한 비로자나불 표면에서 녹색과 빨간색, 검은색 등 기타 유색 안료 잔해도 발견했다. 당시 채색이 돼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며 색이 발한 것으로 유추하고 있다. 또 비로나자불 오른 편에 있는 보살상 안구에서 색유리도 발견됐다. 색유리의 두께는 약 0.5cm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롱멘 그로토스 연구소 쉬지아젠 회장은 "유리를 닦아 내니 짙은 녹색을 띠었는데, 이는 당나라 시대에 보기 드문 일"이라면서 "이번 발견은 조각상 장식의 특성 및 당시 재료들을 연구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은호 기자


중국 허난성에 의치한 룽먼 석굴 비로자나불. 사진출처=신화통신

# 호주 사찰, '종교 평화' 상징 도서관 탈바꿈

**11월 준공…종교 서적 1500권**
**"종교 · 과학 중심 될 것" 기대**


호주 한 사찰에서 '탈종교 도서관 건립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출처=부디스트도어 글로벌

호주 빅토리아 주 벤디고 시 근처에 위치한 한 사찰 'the great stupa of universal compassion'이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유대교 등 각 종교 간의 간극을 초월하는 각종 자료와 유물들의 보고(寶庫)로 거듭날 예정이다.

ABC 뉴스 등 외신은 6월 6일 "주 정부로부터 31만 1000달러(한화 약 4억 원)를 지원받아 '탈종교 도서관 건립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전 세계 학자와 학생들을 매료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7년 전 책 몇 상자의 기부로 시작됐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규모의 책들을 시스템에 목록화하면 됐기 때문에 혼자 일을 시작했다"는 게 현장 관계자의 설명이다.

당국에 따르면 11월, 도서관 준공을 앞두고 1500권 이상의 책들이 수집된 것으로 파악됐다. 도서 중 약 250권은 이미 해당 대탑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에도 게재됐다. 각계 종교지도자들은 "도서관이 영적 깨달음 및 종교의 과학적 분석 등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찬사를 보내고 있다.

현장 관계자는 "신앙과 과학이라는 두 가지 큰 카테고리로 나눠 책을 모으고 있다"며 "불교 서적이 가장 많지만 이웃종교들의 책도 꽤 많이 수집됐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종교 간 이해, 불교와 과학의 교차점 등을 연구하고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주정부와 시의회도 이번 프로젝트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벤디고 시의원인 마리 에드워드(Maree Edwards)는 "개관될 이 도서관은 종교적 가르침을 좇는 전 세계인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라며 "우리 도시에는 다문화 · 다종교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에게 훌륭한 문화 자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곳은 출신 · 종교 등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종교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평화의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기뻐했다. 박정현 객원 기자


# 농선 대원 선사의 전등록 30권, 화엄경 81권 완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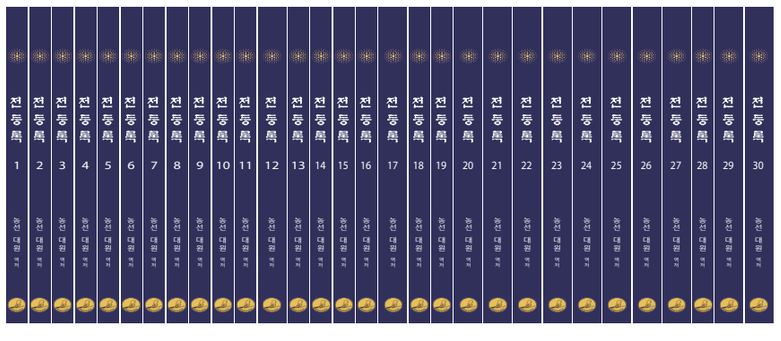

화엄경 81권 세트 100만원 (출판 기념 할인)

수덕사 만공선사의 법맥과
대각사 용성선사의 강맥을
한 몸에 받은 혜안으로
불교 경전의 정수인
대방광불화엄경 완간!

화엄경의 이해를 돕는 각 품의
요점을 요약한 소책자까지
출간 완료!

"7불과 역대 조사들의 깨달음의 진수가 담긴 선종 최고의 공안집!"
전등록 30권에 조사(祖師)마다 선리(禪理)의 토끼뿔을 더해 밝혀 보이다

농선 대원 선사는 불교의 최고 경전인 '화엄경 81권'을 완간하고, 선문 최대의 공안집인 '선문염송 30권' 1,463칙에 대하여 석가모니 부처님 이래 최초로 전 공안을 맑은 물 밑바닥 보듯이 회통쳐 출간하였습니다. 그런 혜안(慧眼)으로 이번에 7불과 역대 조사들의 깨달음의 진수가 담긴 선종 최고의 공안집인 '전등록 30권'을 조사(祖師)마다 선리(禪理)의 토끼뿔을 더해 닦아 증득할 수 있도록 밝혀 보였습니다. 이 바로보임에 화살이 과녁에 적중하듯이 계합하여 참나를 깨달아 몸이 내가 아닌 '마음이 내가 된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전등록 30권 도서출판 문젠
세트 45만원 (T.010-8670-1445)